

## 의사인력 배출의 사회적 관련요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유 승 흠 · 박 종 연

= Abstract =

### Social Factors in Recruiting Physicians and Dentists

Seung Hum Yu, M. D., Chong Yon Park, M. A.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whether recruitment of physicians and dentists has been restricted to a social network, such as familial or kinship groups. The data was collected through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distributed to a sampling of general physicians, specialists (internists, surgeons, other specialists), and dentists in August 1990.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

- 1) Total number of respondents was 405 ; of these, general physicians made up 48.9%, internists 10.4%, surgeons 15.8%, other specialists 4.9%, and dentists 20.0%.
- 2) 38.5% of the respondents had physicians or dentists in their immediate family or were related in some way to one. Those from urban areas, whose parents were highly educated, and whose father was a professional had more physicians or dentists in their family or kinship.
- 3) Parents of 7.1% of the respondents, brothers or sisters of 10.1%, grand parents of 1.7%, uncles or aunts of 7.9%, and cousins of 22.0% were physicians or dentists.
- 4) The majority of physicians or dentists in familial or kinship network specialized in surgery, 32.3%, followed by internal medicine ; current worksites were noted as clinics by 30.8%, followed by general hospital, university hospital, and so on. The respondent's major discipline tended to follow familial or kinship example.

Consequently, it was concluded that physicians and dentists have been recruited within restricted familial or kinship network.

### I. 서 론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직 인력은 총 326,704명이다. 이 중 의사는 36,747명으로 의료전문직 인력의 11.3%에 불과하지만(보건사회부, 1989a), 의료계의 지도적 지위를 1988년 말 현재 면허등록을 기준으로 한 의사, 간호사,

점하고 있는 인력이다. 이 점에서 의사인력이 배출되는데 관련되는 사회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의료 전문인력의 특성과 의료부문의 사회구조적 속성을 이해하기 위한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의사집단에 대한 기존 연구 중 사회과학적 접근을 한 것으로는 의료전문직의 구조적 속성의 분석(조병희, 1982; 1989)과 의사의 직업의식에 관한 조사연구(김문조, 1989)가 있고, 장차 의사가 될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학 및 직업관에 관한 조사연구(이근태 등, 1985) 등이 있다.

전문직업인의 배출은 전문직 분야의 자체적인 교육훈련 기준에 의하여 엄격한 수련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다른 직업집단과 구분되는 특수한 속성을 갖는다. 전문직으로서 의사집단의 특성은 의사인력의 사회적 충원방식에서 형성되고 유지 존속되는데, 의사의 사회적 충원은 공식적으로는 의과대학교육과 의료기관의 수련과정을 통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즉 의사집단의 특성은 교육과 수련과정에서 형성되기도 하지만 (Fredericks and Mundy, 1976), 의사개개인의 성장배경으로부터 형성되는 부분도 많다. 이는 의료가 사회의 한 하위체계로서 다른 하위체계들과 제도, 조직, 비공식적 관계망으로 연결되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의사인력의 충원기관인 의과대학은 1970년 이전까지만 하여도 12개였는데 1988년 현재 32개로 늘어나(대한의학협회, 1988)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의사가 배출될 것으로 예측되는데(송건용 등, 1986; 유승흠 등, 1988), 이러한 의사인력이 사회적으로 어떤 요인들과 관련되어 배출되는지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이 연구는 의사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가족과 친척 등 혈연적 관계망 속에 얼마나 많은 의사가 있는지를 조사분석하고자 하였다. 가족이나 친척 중 의사가 많은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이 의사가 되는 경우가 많다면 주위의 의사로부터 영향을 받아 의사직을 선택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 나아가 의사로서의 전공과목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의사가 있는 집안에서 의사가 배출되는 경향이 많고, 이것은 직업으로서의 의사직이 하나의 가업으로 계승되는 현상으로 일반화되어 있다. 이 연구는 그러한 가업으로서의 의사직의 계승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 II. 연구 방법

조사대상은 전국의 각 의과대학 출신 일반의, 전문의, 치과의사들 중에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은 1990년 초에 의사가가고시에 합격하였거나 인턴수련을 마친 일반의, 전문의 자격고시에 합격한 전문의, 그리고 치과의사 중에서 임의로 선정하여 자기기입식 질문서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질문서에 포함된 내용은 피조사자의 전공, 연령, 출신 지역, 출신의과대학의 소재지, 부모의 교육수준 및 직업, 그리고 가족과 사촌 이내 친척 중 의사유무, 가족 또는 친척 중 의사인 사람의 가족관계, 전공분야, 현직장 등이다. 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가족과 친가 또는 외가의 사촌 이내 친척 중 의사유무와 가족·친척 관계별 의사유무, 전공, 현직장등이고, 독립변수는 응답자의 전공, 출신지, 부의 교육수준, 모의 교육수준, 부의 직업으로 하였다(표 1).

전공은 일반의와 전문의, 치과의로 나누었는데 그 중 전문의는 내과계, 외과계, 기초·지원과계로 분류하였다. 출신지는 지역특성에 따라 직할시 이상의 도시는 대도시, 군단위 이하의 농어촌으로 기타 시급 지역은 중소도시로 나누었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국졸 이하와 대졸 이상, 그리고 중·고졸의 범주로 하였으며, 부의 직업은 전문직·교직, 자영업, 사무직 그리고 사회적으로 직업적 지위가 낮은 농업·생산직·무직으로 구분하였다.

조사에 응답한 의사는 모두 412명이었는데 이들 중 응답이 불충분하여 분석이 곤란한 7명을 제외한 405명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가 모두 명목변수였기 때문에 빈도분석과 교차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석은 첫째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가족·친척 중 의사유무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표를 만들고 카이제곱 검정을 하였다. 둘째 가족·친척 관계별로 의사유무를 분석하여 가족·친척의 관계별 의사백분율을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비교하였다. 끝으로 의사인 가족·친척의 전공과 현직 분포를 분석하고 응답자의 전공분야와 가족·친척 의사의 전공, 현직장을 비교하여 의사의 전공선택에 주변의 의사들이 영향을 주었는지를 검토하였다.

표 1. 연구에 사용된 변수 및 내용

변 수 명	변수의 내용
<b>종속변수</b>	
가족, 친척 중 의사유무	의사있음 ; 의사없음
가족관계별(부모 ; 형제 ; 조부모 ; 삼촌 ; 사촌) 의사유무	의사있음 ; 의사없음
의사인 가족, 친척의 전공	일반의 ; 내과계 ; 외과계 ; 기초 · 지원관계 ; 치과의
의사인 가족, 친척의 현직장	개원 ; 대학병원 ; 종합병원 ; 의원 ; 군의관 ; 공직 ; 은퇴
<b>독립변수</b>	
전공분야	일반의 ; 내과계 ; 외과계 ; 기초 · 지원과계 ; 치과의
출신지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부의 교육수준	국졸 이하 ; 중 · 고졸 ; 대졸 이상
모의 교육수준	국졸 이하 ; 중 · 고졸 ; 대졸 이상
부의 직업	전문직 · 교직 ; 자영업 ; 사무직 ; 농업 · 생산직 · 무직

### Ⅲ. 연구 결과

#### 1. 응답자의 특성

분석된 응답자 405명은 일반의가 48.9%, 내과계 전문의 10.4%, 외과계 전문의 15.8%, 기초학 및 지원과계 전문의 4.9%, 치과의사 20.0%였다(표 2). 이들의 연령은 26~29세가 57.5%였다. 출신 의과대학의 소재지는 서울이 38.5%로 가장 많았고, 광주, 부산·경남, 대전이 각각 13.8%, 12.3%, 11.6% 순이었다.

#### 2. 특성별 가족·친척 중의 의사유무

가족이나 친척 중 의사가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35.8%인 145명이었다(표 3).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가족·친척 중 의사유무에 차이가 있는가를 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한 결과, 외과계 전문의에서 가족·친척 중에 의사가 있는 경우가 46.9%로 가장 많았고, 내과계 전문의에서는 38.1%였으며, 치과의에서 30.9%로 가장 적었다.

출신지별로 가족·친척 중 의사가 있는 응답자는 대도시 43.4%, 중소도시 31.4%, 농어촌 23.3%였다. 이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농어촌 출신보다 중소도시 출신, 중소도시 출신보다는 대도시 출신에서 가족·친척 중 의사가 많음을 뜻한다.

부의 교육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대졸 이상으로 높은 경우에 47.1%가 가족·친척 중 의사가 있었고, 국졸

표 2. 응답자의 특성

특 성	수 (백분율)
<b>전 공</b>	
일반의	198 ( 48.9)
내과계 전문의	42 ( 10.4)
외과계 전문의	64 ( 15.8)
기초 · 지원계 전문의	20 ( 4.9)
치과의	81 ( 20.0)
<b>연 령</b>	
25세 이하	97 ( 24.0)
26~29세	233 ( 57.5)
30세 이상	72 ( 17.8)
무 응 답	3 ( 0.7)
<b>출신대학소재지</b>	
서울	156 ( 38.5)
부산·경남	50 ( 12.3)
대구	40 ( 9.9)
광주	56 ( 13.8)
대전	47 ( 11.6)
강원	19 ( 4.7)
전북	34 ( 8.4)
무 응 답	3 ( 0.7)
계	405 (100.0)

표 3. 응답자의 특성별 가족·친척 중 의사유무

( ) : 백분율

응답자의 특성	의사 있음	의사 없음	합
전 공			
일 반 의	67 (33.8)	131 (66.2)	198 (100.0)
내과계전문의	16 (38.1)	26 (61.9)	42 (100.0)
외과계전문의	30 (46.9)	34 (53.1)	64 (100.0)
기초·지원계전문의	7 (35.0)	13 (65.0)	20 (100.0)
치 과 의	25 (30.9)	56 (69.1)	81 (100.0)
출 신 지**			
대 도시	91 (43.4)	117 (56.6)	208 (100.0)
중소도시	32 (31.4)	70 (68.6)	102 (100.0)
농 어 촌	21 (23.3)	69 (76.7)	90 (100.0)
무 응 답	1	4	5
부의 교육수준***			
국졸 이하	4 (12.9)	27 (87.1)	31 (100.0)
중·고졸	30 (21.7)	108 (78.3)	138 (100.0)
대졸 이상	107 (47.1)	120 (52.9)	227 (100.0)
무 응 답	4	5	9
모의 교육수준***			
국졸 이하	17 (19.3)	71 (80.7)	88 (100.0)
중·고졸	72 (32.4)	150 (67.6)	222 (100.0)
대졸 이상	53 (61.6)	33 (38.4)	86 (100.0)
무 응 답	3	6	9
부의 직업*			
전문직·교직	59 (46.8)	67 (53.2)	126 (100.0)
자 영 업	30 (32.6)	62 (67.4)	92 (100.0)
사 무 직	22 (37.9)	36 (62.1)	58 (100.0)
농업·생산직·무직	28 (26.7)	77 (73.3)	105 (100.0)
무 응 답	6	18	24
계	145 (35.8)	260 (64.2)	405 (100.0)

\* p<.05; \*\*p<.01; \*\*\*p<.001 (카이제곱 검정)

이하인 경우는 12.9%로 매우 적었다. 모의 교육수준별 의사유무 차이도 부의 교육수준별 차이와 마찬가지로 모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가족·친척 중 의사가 많았고, 모의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의사인 가족이나 친척이 적었다.

또한 부의 직업별로 보면 전문직이나 교직인 경우 46.8%가 의사인 가족·친척이 있었던데 비하여 부의 직업이 농업·생산직·무직인 응답자는 26.7%가 의사 친척

이 있었다.

### 3. 가족·친척 관계별 의사유무

가족 및 친척 중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관계별로 의사유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전체적으로 부모가 의사인 경우는 7.1%인 29명이었고, 10.1%는 형제, 1.7%는 조부모, 7.9%는 삼촌, 그리고 22.0%는 사촌 중 의사가 있었다.

응답자의 전공에 따라서 나누어 보면, 내과계 전문의와 외과계 전문의에서 부모가 의사인 경우가 14.3%와 13.5%로 일반의나, 기초·지원과계 전문의나 치과의보다 많았다. 그리고 외과계 전문의에서 형제나 삼촌 등이 의사인 경우가 17.2%로 많았다.

출신지별로는 대도시 출신이 부모를 비롯해 여러 친척들이 의사인 경우가 많았고, 중소도시나 농어촌 출신은 상대적으로 의사인 가족이나 친척이 적었다.

부모의 교육수준별로도 가족·친척 중의 의사유무가 크게 차이가 있었다. 부의 교육수준이 국졸 이하인 경우는 부모와 조부모, 삼촌에 의사가 전혀 없었고, 부가 대졸 이상인 경우 12.8%는 부모, 13.7%는 형제, 11.0%는 삼촌, 30.0%는 사촌이 의사였다.

부의 직업이 전문직·교직일 경우 23.0%는 부모, 14.3%는 형제, 27.0%는 사촌이 의사였고, 부의 직업이 사무직인 경우 12.1%는 형제, 13.8%는 삼촌, 25.9%는 사촌이 의사였다. 이에 비해 부의 직업이 농업·생산직·무직에서는 형제가 의사인 경우가 6.7%, 조부모와 삼촌이 의사인 경우는 각각 2.9% 등에 불과하였다.

### 4. 의사인 가족·친척의 전공 및 직장

응답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의사인 경우 그들의 전공과 현직장은 표 5와 같다. 전반적으로 외과계를 전공한 의사가 32.3%로 가장 많았고, 내과계, 치과의의 순이었다. 현직장은 30.8%가 개원하고 있었으며,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이 각각 21.2%와 20.7%로 비슷하였다.

관계별로 부모의 전공은 외과계가 29명 중 10명으로 34.5%였고, 형제는 내과계가 26.2%로 외과계보다 약간 많았다. 삼촌은 43.8%가 내과계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친척에서도 외과계 의사가 38.2%로 가장 많았다. 현직장은 부모가 의사인 경우 개원이 41.4%로 가장 많았던데 비해 형제가 의사인 경우는 대학병원이 31.0%로 많았다.

끝으로 의사직의 선택 뿐만이 아니라 의사로서의 전

표 4. 응답자의 특성별 의사 가족, 친척 분포

( ) : N에 대한 백분율

특 성 (N)	부 모	형 제	조부모	삼 촌	사 촌
<u>전 공</u>					
일 반 의 (198)	12 ( 6.1)	18 ( 9.1)	3 (1.5)	14 ( 7.1)	38 (19.2)
내 과 계 (42)	6 (14.3)	4 ( 9.5)	-	3 ( 7.1)	12 (28.6)
외 과 계 (64)	8 (13.5)	11 (17.2)	3 (4.7)	11 (17.2)	16 (25.0)
기초, 지원계 (20)	1 ( 2.5)	3 (15.0)	-	-	4 (20.0)
치 과 의 (81)	2 ( 2.5)	5 ( 6.2)	1 (1.2)	4 ( 4.9)	19 (23.5)
<u>출 신 지</u>					
대 도시 (208)	23 (11.0)	24 (11.5)	3 (1.4)	23 (11.1)	58 (27.9)
중소도시 (102)	3 ( 2.9)	10 ( 9.8)	4 (3.9)	5 ( 4.9)	16 (15.7)
농 어 촌 (90)	3 ( 3.3)	6 ( 6.7)	-	4 ( 4.4)	15 (16.7)
무 응 답	-	1	-	-	-
<u>부의 교육수준</u>					
국졸 이하 (31)	-	1 ( 3.2)	-	-	3 ( 9.7)
중. 고졸 (138)	-	8 ( 5.8)	4 (2.9)	6 ( 4.3)	14 (10.1)
대졸 이상 (227)	29 (12.8)	31 (13.7)	3 (1.3)	25 (11.0)	68 (30.0)
무 응 답	-	1	-	1	4
<u>모의 교육수준</u>					
국졸 이하 (88)	-	4 ( 4.5)	2 (2.3)	2 ( 2.3)	11 (12.5)
중. 고졸 (222)	7 ( 3.2)	19 ( 8.6)	2 (0.9)	15 ( 6.8)	47 (21.2)
대졸 이상 (86)	21 (24.4)	17 (19.8)	3 (3.5)	14 (16.3)	29 (33.7)
무 응 답	1	1	-	1	2
<u>부의 직업</u>					
전문직, 교직 (126)	29 (23.0)	18 (14.3)	1 (0.8)	11 ( 8.7)	34 (27.0)
자 영 업 (92)	-	8 ( 8.7)	1 (1.1)	8 ( 8.7)	18 (19.6)
사 무 직 (58)	-	7 (12.1)	1 (1.7)	8 (13.8)	15 (25.9)
농업, 생산직, 무직 (105)	-	7 ( 6.7)	3 (2.9)	3 (2.9)	17 (16.2)
무 응 답	-	1	1	2	5
계 (405)	29 ( 7.1)	41 (10.1)	7 (1.7)	32 ( 7.9)	89 (22.0)

주) 가족, 친척 관계별 의사수를 모두 합하면 표 3에서 가족, 친척 중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수를 초과하는데 이는 가족, 친척 관계별로 두 사람 이상이 의사인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공 선택에 있어서도 의사인 가족이나 친척의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응답자의 전문과목과 의사인 가족·친척의 전공을 비교한 결과, 아직 전공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일반의의 경우는 의사인 가족·친척의 전공 분포가 전체 분포와 비슷한데 비해 전문과목이 정해진 전문의의 경우는 뚜렷한 경향을 보였다(표 6).

우선 내과계 전문의의 가족이나 친척 의사의 전공은

내과계가 36.0%로 다른 응답자들에 비해 많았고, 외과계 전문의의 경우는 가족·친척 중에 외과계를 전공한 의사가 42.9%로 뚜렷이 많았다. 그리고 기초학 및 지원과계를 전공한 의사들에 있어서는 가족·친척에서도 기초학 및 지원과계를 전공한 의사가 37.5%로 가장 많았다.

현직장의 분포는 내과계 전문의의 가족·친척 의사들 중에는 종합병원 봉직이 32.0%로 가장 많았고, 28.0%는 개원하고 있는데 비해 외과계 전문의의 가족·친척 의사

표 5. 의사인 가족, 친척의 전공 및 직장

( ) : 백분율

	부 모	형 제	조부모	삼 촌	사 촌	계
<b>전 공</b>						
일 반 의	2 ( 6.9)	5 ( 11.9)	2 ( 33.3)	3 ( 9.4)	7 ( 7.9)	19 ( 9.6)
내 과 계	7 ( 24.1)	11 ( 26.2)	—	14 ( 43.8)	21 ( 23.6)	53 ( 26.8)
외 과 계	10 ( 34.5)	10 ( 23.8)	2 ( 33.3)	8 ( 25.0)	34 ( 38.2)	64 ( 32.3)
기초 지원계	4 ( 13.8)	4 ( 9.5)	—	3 ( 9.4)	6 ( 6.7)	17 ( 8.6)
치 과 의	3 ( 10.3)	5 ( 11.9)	—	4 ( 12.5)	12 ( 13.5)	24 ( 12.1)
무 응 답	3 ( 10.3)	7 ( 16.7)	2 ( 33.3)	—	9 ( 10.1)	21 ( 10.6)
<b>직 장</b>						
개 원	12 ( 41.4)	10 ( 23.8)	2 ( 33.3)	10 ( 31.3)	27 ( 30.3)	61 ( 30.8)
대학병원	5 ( 17.2)	13 ( 31.0)	—	6 ( 18.8)	17 ( 19.1)	41 ( 20.7)
종합병원	1 ( 3.4)	9 ( 21.4)	1 ( 16.7)	7 ( 21.9)	24 ( 27.0)	42 ( 21.2)
의 원	6 ( 20.7)	2 ( 4.8)	—	5 ( 15.6)	6 ( 6.7)	19 ( 9.6)
군 의 관	—	5 ( 19.2)	—	1 ( 3.1)	8 ( 9.0)	14 ( 7.1)
공 직	3 ( 10.3)	1 ( 2.4)	1 ( 16.7)	2 ( 6.3)	5 ( 5.6)	12 ( 6.1)
은 퇴	—	—	2 ( 33.3)	1 ( 3.1)	—	3 ( 1.5)
무 응 답	2 ( 6.7)	2 ( 4.8)	—	—	2 ( 2.2)	6 ( 3.0)
계	29 (100.0)	42 (100.0)	6 (100.0)	32 (100.0)	89 (100.0)	198 (100.0)

표 6. 응답자의 전공별 의사 가족, 친척의 전공 및 직장

( ) : 백분율

	응답자의 전공				
	일반의	내과계	외과계	기초 지원과계	치과의
<b>가족, 친척의 전공</b>					
일 반 의	9 ( 10.6)	1 ( 4.0)	5 ( 10.2)	1 ( 12.5)	3 ( 9.7)
내 과 계	24 ( 28.2)	9 ( 36.0)	11 ( 22.4)	2 ( 25.0)	7 ( 22.6)
외 과 계	27 ( 31.8)	9 ( 36.0)	21 ( 42.9)	—	7 ( 22.6)
기초 지원계	6 ( 7.1)	4 ( 16.0)	2 ( 4.1)	3 ( 37.5)	2 ( 6.5)
치 과 의	11 ( 12.9)	2 ( 8.0)	4 ( 8.2)	1 ( 12.5)	6 ( 19.4)
무 응 답	8 ( 9.4)	—	6 ( 12.2)	1 ( 12.5)	6 ( 19.4)
<b>가족, 친척의 직장</b>					
개 원	26 ( 30.6)	7 ( 28.0)	17 ( 34.7)	2 ( 25.0)	9 ( 29.0)
대학병원	16 ( 18.8)	6 ( 24.0)	10 ( 20.4)	2 ( 25.0)	7 ( 22.6)
종합병원	15 ( 17.6)	8 ( 32.0)	10 ( 20.4)	4 ( 50.0)	5 ( 16.1)
의 원	12 ( 14.1)	—	4 ( 8.2)	—	3 ( 9.7)
군 의 관	4 ( 4.7)	4 ( 16.0)	3 ( 6.1)	—	3 ( 9.7)
공 직	6 ( 7.1)	—	3 ( 6.1)	—	3 ( 9.7)
은 퇴	2 ( 2.4)	—	1 ( 2.0)	—	—
무 응 답	4 ( 4.7)	—	1 ( 2.0)	—	1 ( 3.2)
계	85 (100.0)	25 (100.0)	49 (100.0)	8 (100.0)	31 (100.0)

들은 개원이 34.7%로 가장 많았고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봉직은 모두 20.4%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기초학 및 지원과계 전문의의 주변에는 개원보다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 봉직하는 의사가 많았다.

#### IV. 고 찰

이상에서 의사집단을 대상으로 가족·친척 등 혈연관계망 내에 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관계의 가족·친척이 의사인지, 의사인 가족·친척의 전공과 현직장은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응답자의 35.8%가 가족이나 친척 중 의사가 있다는 단적인 사실만으로도 의사가 있는 환경에서 의사가 배출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988말 현재 우리나라 면허등록 의사 1인당 인구수가 1,142명 (보건사회부, 1989b)임을 감안할 때 이 연구에서 응답자의 7.1%의 부모가 의사이고, 10.1%는 형제가 의사라는 것은 의사가 배출되는 사회적 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더우기 삼촌, 사촌 등으로 범위를 넓히면 각각 7.9%와 22.0%가 의사라는 결과에서 사회적으로 일부의 혈연적 단위에서 주로 의사가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의사가 되는데 주위의 가족이나 친척 의사의 영향이 지대함을 뜻한다고 풀이된다.

의사가 일부의 계층에 집중되어 배출되고 있음은 응답자의 특성분포에서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대도시·대도시나 중소도시 출신이고, 부모의 교육수준이 매우 높으며, 부의 직업은 전문직·교적이 가장 많았다. 응답자들의 이와 같은 출신지, 부모의 교육수준, 부의 직업을 보면 이들이 사회적으로 중상층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의사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중상층임을 뜻한다.

또한 응답자의 특성별로 가족·친척 내 의사유무 차이를 보면 이 점이 보다 분명해진다. 출신지별로 대도시 출신 의사의 가족이나 친척에 의사가 많았고,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은 의사의 가족·친척에 의사가 많으며, 부의 직업이 전문직·교적인 의사의 가족·친척에 의사가 많았다. 따라서 출신지, 부모의 교육수준, 부의 직업 등이 가족이나 친척 중 의사유무와 상관성이 높고, 이러한 요인들의 종합인 사회적 지위가 의사배출의 중요한 요인

임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들에 의하면, 가족·친척 중 의사유무가 의사직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응답자의 전공분야와 그들 가족·친척 의사들의 전공분야를 비교분석한 결과 전공선택에 가족이나 친척의 전문분야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즉 의사직의 선택은 물론이고 전문분야 선택에서도 주위의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상의 논의에는 다음과 같은 이 연구의 제한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성격에 제한점이 있다. 연구의 성격상 전국의 모든 의사를 모집단으로 하는 표본을 선정해야 하는데 조사 편의상 모든 연령층의 의사를 조사표본으로 선정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다양한 연령층의 의사가 포함되지 못하였고, 여자 의사가 조사대상 표본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일부 특정 지역의 의사만을 조사하지 않고 전국 각 의과대학 출신 의사를 골고루 표본으로 하였기 때문에 가족 및 친척 내의 의사유무 경향을 파악하는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둘째, 분석에 이용할 수 있는 변수가 명목변수로 제한되어 있어서 분석방법에 한계가 있었다. 변수가 명목변수일 때 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이외에 다변수분석방법의 적용이 용이하지 않다. 이 때문에 응답자의 특성별 가족·친척내의 의사유무 차이검정은 카이제곱 검정에 의존하였다. 전체 친척 내 의사유무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검정하였으나, 가족·친척 관계별 의사유무 차이는 사례수가 적어서 통계학적인 검정은 하지 못하고 단순히 특성별 상대적인 백분율을 비교하여 의사유무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세째, 연구대상을 의사집단으로 하였다라는 점이 의사인력 배출의 사회적 관련요인을 밝히는데 적당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일반적인 사회성원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의사가 집중되어 있는 혈연관계망을 조사하는 것이 의사인력 배출의 관련요인을 찾아내는데 더 적합할 수 있으나, 전체 인구 중 의사는 매우 적으므로 모집단을 일반인구집단으로 하면 매우 큰 표본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때문에 의사집단을 모집단으로 하여 의사집단 내에 의사인 가족과 친척이 얼마나 있는가를 조사하여 의사가 나오는데 관련되는 사회적 요인을 찾아보았다.

몇 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의사는 가족과 친척 중 의사가 있는 사회적 배경에서 배출되는

경향이 있고, 구체적으로 출신지가 대도시인 경우,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부의 직업이 전문직·교직 등으로 직업적 지위가 높은 경우 등이 의사인력의 배출 관련요인인 경향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의사라는 사회적 지위가 일부의 제한된 혈연관계망 속에서 재생산되는 현상으로 생각된다.

## V. 요약 및 결론

직업으로서의 의사인력이 어떠한 사회적 환경과 관련되어 배출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의사들에 대하여 질문서를 이용하여 그들의 가족이나 친척 중 의사가 있는지를 조사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응답한 의사는 총 405명으로 일반의가 48.9%, 내과계 전문의가 10.4%, 외과계 전문의가 15.8%, 기초학 및 지원과계 전문의가 4.9%, 치과과의가 20.0%였다. 이들의 연령은 대부분 20대 후반이었으며, 출신 의과대학 소재지는 38.5%가 서울이었고 전국 각지의 의과대학이 포함되어 있었다.

2. 응답자의 35.8%가 가족이나 친척 중 의사가 있었고, 대도시 출신 의사,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은 의사, 부의 직업이 전문직·교직인 의사 중에 의사인 가족·친척이 많았다.

3. 가족·친척 관계별로 나누어 보면, 7.1%는 부모가 의사였고, 10.1%는 형제, 1.7%는 조부모, 7.9%는 삼촌, 22.0%는 사촌 가운데 의사가 있었다.

4. 가족·친척 의사들의 전공은 외과계가 32.3%로 가장 많았고 내과계가 두번째였으며 현직장은 개원이 30.8%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의 순이었다. 응

답한 의사들의 전문분야는 그들의 가족이나 친척 의사들의 전공에 따르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같이 의사가 있는 집안에서 의사인력이 배출되는 경향이 있고 전공분야 선택에도 크게 영향을 주었는데, 사회적으로 의업은 다른 직업에 비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전문직이어서 가업으로 전수되는 경향이 강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이를 경험적으로 뒷받침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참고 문헌

- 김문조. 한국의사들의 직업의식. 현상과 인식 1989; 13(1): 26-52
- 대한의학협회. 의협연보. 1988
- 보건사회부. 보건사회. 1989a
-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1989b
- 송건용, 김수춘, 김영임. 보건의료인력 장기수급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6
- 양재모. 유승훈, 국민의료총론. 서울, 수문사, 1984
- 유승훈. 의료정책과 관리. 서울, 기린원, 1990
- 유승훈, 조우현, 이용호, 전병율. 우리나라 의사인력의 공급 및 생산성 추계. 예방의학회지 1988; 21(1): 61-69
- 이근태, George Won, 오인환. 한국의대생의 의학 및 직업관 연구. 1985
- 조병희. 한국 의사집단의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2
- 조병희. 한국의료전문직의 구조분석. 현상과 인식 1989; 13(1): 9-25
- Fredericks MA and Mundy P. *The Making of a Physician.* Chicago, Loyola University Press, 1976